

간략한 소개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을 하였지만 부모님 사업 관련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2016 년 학교를 졸업 후 2021 년 6 월까지 사업 관련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감축이 필요했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대학 전공 관련하여 알아보다가 초급 AI 개발자 국비교육과정을 알게 되었고 지난해 11 월 중순을 시작으로 현재 4 개월 차 진행 중입니다. (4 월 수료 예정)

본인은 어떤 사람인지, 개발자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각오, 좌우명 중 한 가지만 임팩트있게 작성해 주세요~~
(서술 노노)

프로젝트

Hiseoul – 2022/01 ~ 2022/04

Code: https://github.com/cptksh0710/hiseoul_ml_project

- CCTV 화면 내에 이동하는 사람들의 수를 ML 을 통해 count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 분석하는 웹사이트, DB 구축

학교 or 학원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도 작성하여 빈 칸이 남지 않게~(김상모 강사 파이썬 프로젝트 and 이서준 강사의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 포함)

이력

2007.03 ~ 2013.02 한신대학교 컴퓨터정보소프트웨어학부 (자퇴)

2013.03 ~ 2016.02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소프트웨어학과(졸업)

2021.11 ~ 2022.04 초급 AI 개발자 실무역량 강화교육 국비교육과정



김 상 훈

연락처

010-9962-3135

cptksh0710@gmail.com

<https://github.com/cptksh0710>

보유 기술

- Programming Language
Python, Java, HTML5, CSS3, Javascript
- Framework
React
- Server
Apache Tomcat, Postgres

성장과정

소방공무원인 아버지와 보험설계사 어머니 사이에 2 남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직업 특성상 근무지가 자주 바뀌어 초등학교 ~ 중학교 시절 3 번 이사를 하였고 그로 인해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맞벌이 집안이라 형제를 제외하고 주로 혼자 지내는 시간 대부분을 TV 를 보았는데 99 년 초등학교 5 학년 인터넷 ADSL 보급과 함께 집에서 마련해준 컴퓨터를 통해 저의 관심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타크래프트, 바람의 나라와 같은 게임을 처음으로 접하였고 이사를 통한 통학 환경이 자주 바뀌어도 게임이라는 공통 분모가 생기니 새로운 환경에서 만나게 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게임 관련 대화를 하다 보니 게임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컴퓨터 장비(CPU, 그래픽카드 모델)와 소프트웨어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나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대학 전공도 컴퓨터 관련분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학한 대학에서 C 언어를 통해서 처음 코딩을 접하였고 군복무를 끝내고 2 학년까지 프로그래밍 과제들을 접하였지만 전공 교재 위주였고 선배들 취업 관련 정보와 교내 분위기도 저한테는 마땅치 않아서 더 좋은 환경의 대학에서 전공 공부, 관련 분야 취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 학년 마치고 편입을 준비, 전공을 살려서 단국대학교에 편입학을 하였습니다. 기존 학교와 다르게 수업 내 교수님들의 질문이 빈번했고 프로젝트 과제의 난이도 수준, 대기업에 취업하는 선배들의 취업 비율과 교내 정보 교류 등을 접하다 보니 교육 환경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의료기기 사업시작과 운영 어려움으로 대학 생활에 전념하기 힘들어져서 학점관리, 포트폴리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 했고 결국 졸업 이후 관련분야 취업을 포기하고 최근까지 부모님 사업을 도왔습니다. 한 동안은 잘 운영되었지만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부모님 사업의 판매 실적, 직원들 임금관리에 어려움을 갖게 되었고 일손을 줄여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서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다시 취업전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준비도 잠시 고려 하였지만 대학 때 전공에 투자한 시간과 놓친 기회들에 대한 아쉬움이 커서 IT 계열 취업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지식,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서 해당 분야에 관련된 여러 국비교육, 부트캠프 과정들을 알아보게 되었고 지난 11 월부터 현재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초급 AI 개발자 실무역량 강화 국비교육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Python 을 시작으로 머신러닝 운영에 필요한 numpy, pandas, matplotlib, tensorflow 수강을 받고 있고 매주 멘토링을 통해서 해당 분야 개발자분께 실무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멘토링을 받다 보니 과거 대학 때 외부 활동 없이 전공 수업 위주로만 했던 제 자신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현재 3,4 월 남은 교육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현재 교육과정이 Back-end 위주라 Front-end 분야의 Javascript 와 관련된 Framework 등 개인적으로 공부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번이 마지막으로 찾아온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장과정 feedback

지난 번 자기소개서 피드백 자료에도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자기소개서는 본인의 인생을 나열해서 서술하는 게 아닙니다. 서술로 김상훈 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는 있지만 지금이 글로 김상훈 님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글도 많고 사실만 있고 감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본인의 삶 중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으며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개발자가 갖춰야 할 부분을 어필하면 더 좋음) 알리고 면접을 통해 더 알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본 과정의 취업 연계 말고 본인이 직접 구직활동을 한다고 가정하여 작성해 보세요.

(예시 글)

컴퓨터와 나의 연결고리(글의 주제)

소방공무원이신 아버지의 직업 특성상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시절까지 여러 번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때 가정마다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케 되고 스타크래프트 등과 같은 게임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컴퓨터 장비는 물론 sw, 네트워크 환경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하여 자주 바뀌는 생활 환경 속에서도 컴퓨터와 게임이라는 공통분모로 쉽게 친구들과 친해지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어 컴퓨터는 저의 학창 시절에 외로움을 달래준 고마운 존재이자 계속해서 탐구하고 싶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옆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해 나가는 모든 컴퓨터 시스템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 sw 의 새로운 정보나 신기술 등이 전해지는 날이면 밤을 새워가며 알고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저의 인생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한 몸 같은 존재가 되었고 대학교 전공도 sw 관련 학과로 졸업하여 개발자로서의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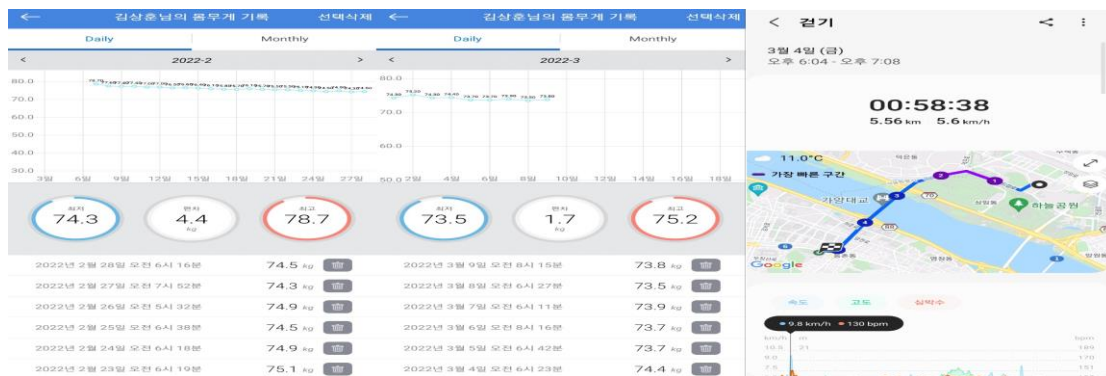
sw 에 대한 필연 같은 관심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할 자세가 되어 있는 인재가 바로 저입니다.

성격 및 장단점

확실한 목표가 정해지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성장과정에서 편입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단국대학교에 합격하는데 2 년이 걸렸습니다. 편입을 준비하고 실패한 것이 제 인생으로 크게 겪은 첫 위기였습니다. 이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원래 있던 학교에서 졸업을 해야 하나? 하지만 미련이 많이 남았고 원인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에 갔던 점, 질문을 너무 하지 않은 점, 목표를 상위 학교에 너무 높게 잡아서 배운 것을 모두 복습하지 못한점등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준비할 때 수면시간을 4 시간으로 조정, 오전 7 시 수업시작이면 한 시간 일찍 나와서 예습, 수업이 끝나면 오후 10 시 학원 문 닫을 때까지 자습을 하면서 조교한테 궁금한 점 질문하기, 당일 배운 내용 당일 복습, 대학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기, 이렇게 편입을 준비하여 결국 단국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겪은 위기는 초급 AI 개발자 교육과정에 들어오기 전에 발생하였습니다. 2018 년도에 ‘퀘양성대장염’이라는 질병을 초기 진단받아서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고 안정적이었던 부모님 사업이 다시 어려워지면서 취업을 다시 준비하는 상황 겪게 되었고 운동, 식단, 스트레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교육 과정 시작하기전에 병원에 열흘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할 때 즈음에는 이미 7 일정도 교육이 진행된 상태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잡은 기회였고 ‘많이 부족해도 직접 나가서 현재 나의 상태를 직면하고 문제점을 찾아보고 해결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2 월 1 일부터 수강 시작을 하였고 글을 쓰는 3 월 현재까지 꾸준히 출석하였습니다. 학습에서의 측면은 문제없었지만 건강적인 측면에서 퇴원 후 1 월말까지 너무 먹기만 해서 78kg 까지 체중이 증가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2 월부터 현재까지 집에서 교육받는 곳까지 약 5.5km, 왕복 11km 를 매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버그가 없는 프로그램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프로그래밍 개발은 항상 겪는 버그로 발생하는 위기를 거쳐가면서 완성에 가깝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단조절까지 같이 하고 있고 현재 78kg 에서 73.5kg 까지 감량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저의 사례들처럼 프로그램도 많은 위기와 시행 착오들을 거칩니다.

“버그가 없는 프로그램은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겪은 경험들과 해결 과정 등을 통해서 앞으로 취업하고 나서 저의 프로그래밍 개발방식 마찬가지로 항상 겪는 버그로 발생하는 위기들을 직면하고 보완하면서 완성에 가깝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격의 장단점 feedback

자기소개와 같은 생각입니다.

(예시 글)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성공하고자 하는 마부위침의 자세 (글의 주제)

철전팔기의 도전정신과 사막의 햇볕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SW programmer 를 꿈꾸는 자! 바로 저입니다. 목표한 대학교로의 편입을 위해 2 년 동안 매일 오전 7 시부터 밤 10 시까지 하루 4 시간씩만 자며 열심히 공부해 결국 합격할 수 있었고 작년에 건강관리에 소홀해 대장성궤양이라는 질병과 비만으로 고생할 때에도 자기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토록 바라는 SW 전문가는 한낱 꿈이라는 걸 깨달아 지금도 매일 하루 10Km 씩 집과 강의장을 걸으며 아프기 전 몸무게를 유지하며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목표를 향한 인내와 노력은 SW programmer 로써 귀사의 확실한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 해 흘린 땀의 양만큼만 수확을 기대하는 시골 농부의 소박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정직한 마음이 가진 인재가 바로 저입니다.